

일제강점기 거문도 근대화 과정

- 사회구조를 중심으로 -

박민정* · 박순호**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of Geomundo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 focused on social structure

Park, Min Joung* · Park, Soon Ho**

요약 : 본 연구는 거문도를 사례로 근대화 과정에 대하여 사회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근대화 이전 거문도의 사회구조는 하나의 마을을 기본적인 공간단위로 하는 공동체 의례와 조직에 기초한 전통적인 사회로 각 마을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이고 병렬적인 공간구조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일본인의 이주라는 일제에 의한 강제된 근대화로 기존의 마을과는 별개로 형성되는 집단거주공간을 중심으로 근대화가 이식되고 확산되었다. 그 과정에서 개별 거주지 간의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공동체 의례뿐만 아니라 새로운 근대적 사회조직의 출현과 그 성격도 변화하였다. 그 후 근대화 토착화기에는 선진어업기술 및 유통체계의 근대화에 따른 자본주의적 생산체제로의 전환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근대적 규범이 정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 후반에는 관변조직 뿐만 아니라 각종 자생적 자치조직까지도 식민지 수탈정책을 보조하는 근대화에 역행하는 조직으로 전락하였다. 공간구조는 공동체의 영역 및 구성원의 외연적 확대로 마을 간의 연계성이 강화된 위계적인 구조로 재생산되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강제된 근대화’라는 한계성으로 기존의 자율적이고 자생적 조직의 해체에 따른 지역공동체 의식의 붕괴라는 부작용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주요어 : 근대화, 토착화, 사회구조변화, 일제강점기, 거문도

Abstract : This paper analyzed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in terms of the social structure in Geomundo. Before modernization, social structure in Geomundo was traditional society by a village unit. A village had community rituals and organization. There were independent parallel spatial structure among villages. In the early Japanese colonial period, ‘forced modernization’ had been occurred by Japanese immigrants settling in a separate living space. The modernization was transplanted in a new established village and diffused into other villages. In the process of forced modernization, the connection among villages was reinforced, as the result of that modern social organization was emerg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rituals had been changed. During modernization indigenization period, advanced fishery technology and distribution system occurred capitalist production system helping to place modern norms in the general daily life. In the late Japanese colonial period, aided organizations from local government and informal organizations reversed the trend of modernization through helping colonial exploitation policy. The spatial structure in Geomundo had become to hierarchical structure with intensified connectivity as the result of extensive spread of community territory. Modernization in Japanese colonial period was ‘forced modernization’ and could not re-established the community spirits. The community spirit has been broken up by dissolving the existing self regulating and self motivated organization.

Key Words : modernization, indigenization, the change of social structure, Japanese colonial period, Geomun-do in Jeonnam Province

1. 머리말

근대화 과정은 비서구적 사회에서 서구 문물과 접촉하며 발생한 국제적 문화이식 과정과 그에 따른 변동의 토착화 과정을 의미한다(전경수, 1994). 한국의 근대화는 유교적 체제에 바탕을 둔 봉건적 전통사회가 근대 사회로의 이행으로, 그 시점에

대해서는 논쟁이 없지 않으나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와 시민의식의 성장과 변화의 지속성이라는 점에서 19세기 개항기가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조기준, 1973).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은 타율적 개항과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화에 따른 급속한 전통사회의 와해를 경험한 외부로부터 강제된 근대

* 신라대학교 지리학과 시간강사(Lecture, Department of Geography, Silla University)(packmjf@naver.com)

** 대구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hpark@dnue.ac.kr)

화(forced modernization)로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근대화에 대한 연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제 측면에서의 거시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 대한 거시적 연구는 크게 경제학(권태익, 1989; 김용섭, 1992; 안병직·中村哲, 1993; 이계열, 1997), 역사학(고동환, 1993; 김호중, 1986; 이영학, 2001), 정치학(구범모, 1973; 이윤근, 1974) 분야를 중심으로 근대화 과정의 일반적 성격의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외 근대화 과정에서 이식된 서구식 주거공간이나 예절, 종교 등을 포함한 규범(norm)과 가치체계의 확산에 대한 연구(尹德弘, 1991; 강혜영, 2002; 정영삼, 2003)도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근대화에 의한 지역변화에 관한 연구도 지리학(김일기, 1985; 김종원, 1976; 유명렬, 1979; 유왕렬, 1967; 윤정숙, 1985; 장보웅, 1988; 최영준, 1974)과 인류학(여박동, 1992; 여박동, 2002), 역사학(손정목, 1996; 송규진, 2001)을 중심으로 일본인 거류지와 개항장 설치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과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있으나, 현재의 지역 발전 및 구조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그런데 근대화를 국제적 문화이식과 이식된 문화의 토착화과정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다(박민정, 200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근대화에 관한 연구는 국가 단위의 거시적 연구뿐만 아니라 지역단위의 미시적 연구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공간과 사회의 관계론적 시각에서 본다면, 대체로 공간결정론 혹은 사회결정론적 입장에서 근대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은 단순한 사회화 과정(social process)의 투영체이거나 결과물이 아니라 재사회화 과정을 규정하기도 한다. 즉 한 지역은 근대화과정에서 기존의 고유성이 해체되어 가며 점차 새로운 제도과 기술을 수용하고 이를 토착화하여 시간이 지나면 이전과 다른 지역성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공간상에 반영된다. 따라서 근대화과정을 공간과 사회의 관계에서 보면, 공간적 특성은 사회적으로 볼 때 제대로 이해될 수 있으며, 사회적인 것은 공간의 시점에서 바라볼 때 제대로 분석할 수 있다(조명래,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간과 사회의 관계론의 입장에서 근대화에 대한 미시적 연구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본 연구는 소위 ‘공간과 사회의 변증법적 관계론’(Soja, 1980; 조명래, 2013)의 분석시각에서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문도¹⁾를 사례로 근대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토착화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지역인 거문도는 조선의 변경 도서지역으로 조선 후기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의 중심지로부터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를 잘 보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항기와 근대화 과정에서 다른 대부분의 소외지역과는 달리 일본인 이주어촌의 형성이라는 독특한 근대화 과정을 통해 외래문화가 이식되고 토착화되는 과정을 분석하기에 적절한 지역이다. 또한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일본인 이주가 본격화되고 거주지가 형성되는 1900년경부터 해방까지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근대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토착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 이전 시기의 사회구조에 대한 분석도 요구되기 때문에 전통사회도 시간적 범주에 포함시켰다. 즉 분석 대상 시기는 개항기 이전, 근대화 이식기(1906~1920년대 중반) 그리고 근대화 토착화기(1920년대 중반 이후~해방)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였다. 대표적인 문헌자료로는 『巨文島沿革誌』, 『巨文鎮誌』, 『盧山志』, 『戶口總數』, 『民籍統計表』, 『朝鮮國勢調查報告書』와 『삼산면 除籍簿』 등의 1차 자료와 그 외 2차 자료²⁾를 이용하였다. 현지조사는 1999년에서 2003년 4월에 걸쳐 일제 강점기 당시부터 거문도에 거주한 현지인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 거문도의 개관 및 근대화의 시기별 특성

1) 거문도의 개관

본 연구의 연구대상 지역인 거문도는 현재 전남 여수시 삼산면에 속하는 3개의 도서⁴⁾로 구성되며 그 사이에는 약 8km²에 달하는 내해가 형성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27.48km²이다. 경위도 상으로는 동경 127°19', 북위 34°1'에 위치하여, 중국대륙과

일본열도 그리고 한반도를 연결하는 교통 요지로 태풍 등 자연재해의 피난처로서 일찍부터 취락이 형성되었다(삼산면, 2000; 여박동, 1992).

조선후기에는 흥양현에 속하였으며, 1895년에는 초도, 손죽도와 합해 삼산면이 되어 돌산군(突山郡)에 속하였다가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여수군으로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巨文島沿革誌). 행정적으로는 5개리, 6개의 자연 마을로 구성된다⁵⁾. 이들 자연마을은 모두 3개 섬으로 둘러싸인 내해의 완경사면에 입지하고 있다(삼산면, 2000). 그러나 평지의 면적이 좁고, 하천이 발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토양의 비옥도가 낮아 농업이 발달하지 못하였다(그림 1). 여수에서 114.7km이고 여수와 제주도와의 중간지점에 위치하며, 주변에 큰 섬이 없는 낙도로서 개항기 이전까지는 전형적인 변경도서에 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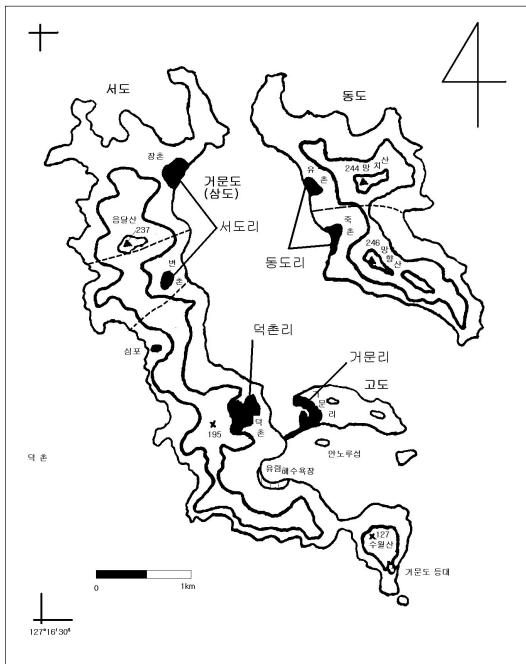


그림 1. 거문도의 지형과 촌락

그러나 19세기 서구 열강들의 동아시아 진출과정에서 지정학적 요충지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1845년부터 영국, 러시아, 일본 등의 외세의 각축장이 되었다⁶⁾. 구체적으로 1845년 영국군의 탐사를 시작으로 19세기 말까지 러시아, 미국, 프랑스

그리고 네덜란드 군함의 내왕이 있었다. 특히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려는 영국은 1885년부터 1887년에 걸쳐 거문도를 점령하고, 당시 무인도인 고도(孤島)에 해군기지를 건설하였다. 그러나 영국은 1887년 2월 러시아를 비롯한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의 반발로 철수하였다(곽영보, 1986).

한편 개항기 이전부터 어업자원면에서 거문도에 큰 관심을 가져왔던 일본은 러시아와 영국간의 분쟁지역이 되고 영국군이 철수한 것을 계기로 거문도의 풍부한 어족 자원을 바탕으로 당시 취락이 형성되지 않았던 고도에 1906년 일본인이 처음으로 정착하였다. 한일합방 이후 본격적으로 거문리에 일본인 거주지가 형성되면서 거문도 근대화의 전초기지가 되었다. 이와 같이 거문리를 중심으로 한 거문도의 근대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영국군 점거 당시 구축된 항만기반시설과 일제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한국에 대한 어민 및 어업 정책의 영향으로 많은 일본 어업인들의 이주와 어업기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물의 이식과 토착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여박동, 2002).

2) 거문도 근대화의 시기구분과 시기별 특성

머리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문도의 근대화는 이식기와 토착화기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2시기 외에, 근대화 이전의 전통문화 원형이 유지되는 전통사회를 하나의 시기로 설정하여 3시기로 구분하고자 한다. 특히 거문도의 근대화 과정에서 근대화 이식기와 토착화기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인들의 집단거주지의 형성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전형적인 강제적 근대화와 그 토착화라는 본 연구지역과 분석시각에서 일반적 일제강점기의 시기구분⁷⁾과는 달리 일본인 거주 시작된 1906년부터 한국인이 일본인 거주지역인 거문리로의 이주와 지역의 산업이 근대적 산업 구조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는 192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근대화 이식기와 근대화 토착화기로 구분하였다. 다음은 각 시기별 특성을 개관하고자 한다.

(1) 근대화 이전의 전통사회시기

거문도를 구성하는 3개 섬의 하나인 고도(孤島)에 1906년 일본인 이주어촌이 형성되기 이전까지의 시기로, 농업 중심의 반농반어의 도서촌락으로 농업은 산록부의 계단식 경작지를 이용한 연 2모작으로 이루어졌다⁸⁾. 그러나 거문도의 1년 농업생산량은 “거문도 사람의 3개월 치 식량도 되지 않았다(삼산면, 2000)”라고 할 정도로 매우 적었다. 한편 어업도 거문도의 3개 섬으로 둘러싸인 내해를 중심으로 원시적인 抄網(채그물)과 敷網(들그물) 등의 그물을 이용한 멸치잡이와 미역을 비롯한 해조류 채집이 중심이었다. 『巨文鎮誌』에 의하면, 미역 채집은 내해 중심의 어로와는 달리 멀리 울릉도까지 원행하는 소위 원해어업이었다고 한다. 거문도에서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동도의 죽촌리와 동도리에서 발견된 유물⁹⁾ 등으로 신석기 시대로 추정된다. 그러나 문헌상으로 임진왜란 전후에 촌락이 형성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1789년의 『戶口總數』¹⁰⁾와 1890년대 말경에 『巨文鎮誌』와 『廬山志』에는 촌락명과 총 세대수(390호)가 기록되어 있다. 즉 개항기 이전의 전통사회 시기에는 동도와 서도에 각각 2개 마을, 총 4개 마을이 상호 간에 계층성이나 연계성 없이 독립적인 지역공동체로 존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의 마을공동체는 주요한 사회관계가 거의 촌락 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동을 막고 강한 구속력과 규제력을 행사하는(한상복 외, 1980) 삶의 공간단위이었다.

(2) 근대화 이식기(1906~1920년대 중반)

거문도의 근대화는 개항기 이전에는 무인도이었던 고도에 1906년 일본인이 이주하여 집단거주지를 형성하면서 선진화된 상업적 어업을 기반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도에는 이들의 집단거주지가 형성되기 전인 1885년에서 1887년에 걸쳐 영국의 해군기지가 건설되었다. 동시에 서도와 고도를 연결하는 방파제를 축조하였다. 이를 위한 연인원 3,000여명의 주거시설과 기반시설이 갖추어졌다(곽영보, 1986; 삼산면, 2000). 이러한 거주시설은 일본인 집단거주지인 거문리가 거문도 근대화의 중심지로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한 요인이 되었다. 또 다른 요인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의 어업정책과 이민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급격한 인구 성장에 따른 수산물 수요증대와 인구문제의 대책으로 적극적인 해외 어장의 확보를 위한 어업 및 이민정책을 추진하였다¹¹⁾. 그 결과 거문도에도 일본인들이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초기 이주자들은 당시 거문도의 전통적인 어로와는 다른 주로 어선¹²⁾을 이용한 외줄낚시(一本釣)와 주낙(延繩)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어법은 거문도 내 한국인들에게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그리고 1910년대 중반부터는 기선저인망(機船底引網)이라고 하는 고등어 건착선¹³⁾이 부산이나 일본으로부터 거문도로 귀항하기 시작하면서 어업전진기지화 되면서 수산물 유통구조도 혁신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즉 거문도 연근해에서 잡은 생선뿐만 아니라 기선저인망으로 잡은 어획물은 주로 선어나 활어상태로 일본의 수산물 기업¹⁴⁾을 통하여 일본뿐만 아니라 타이완과 중국 본토로 수출되는 전형적인 상업적 어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어획량이 늘어남에 따라 1920년대에는 거문리에 제빙소가 설립될 정도로 근대적 어업이 거문리를 중심으로 이식되기 시작하였다(삼산면, 2000). 이와 같은 어업의 근대화를 기반으로 거문도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면사무소 소재지가 서도의 장촌리에서 1914년에는 거문리로 이전하게 되었다. 그 후 일본의 적극적인 어업과 이민정책으로 거문항은 1923년 4월에 지정항으로 승격함에 따라 일본인 거주자들도 급속하게 늘어나게 되었다. 당시 일본인 집단거주지역인 거문리에는 98세대 360명이 거주하고 있었다(이진영, 1992). 특히 거문항이 지정항으로 승격되면서 거문리는 거문도의 행정중심지인 동시에 거문도의 연근해어업의 전진기지로 발전하여 면사무소를 비롯한 각종 공공기관과 상업 및 서비스업 시설이 집적함으로써 근대화 이전의 독립적인 지역공동체로 존립하던 촌락들이 거문리를 중심지로 상호연계성을 강화하게 되었다.

(3) 근대화 토착화기(1920년대 중반 이후~해방)

거문도의 근대화 과정에서 1920년대 중반까지 근대화 이후 일본인 전용거주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문리로 한국인들의 이주가 시작¹⁵⁾되고 그 전까지 주요 산업이었던 농업이나 어업에서 근대적 산업인 수산업 관련 제조업을 비롯한 각종 상

업 및 서비스업의 비율이 제고되고, 이러한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들이 늘어나면서 거문리 뿐만 아니라 그 외 거문도 지역에서도 생업이나 일상생활 면에서 근대적 규범(norm)이 확산되었다는 측면에서 근대화의 토착화기로 규정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1923년 지정항으로 승격된 거문항의 구축공사가 1938년에 완공되어 남해안의 어업 전진기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됨으로서 거문도 근대화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즉 제빙소, 조선소, 철공소 등과 같은 수산업 관련 제조업과 병원, 목욕탕, 잡화상, 심지어 유곽까지 입지하게 되어(이진영, 1992) 근대화 이식기와는 상이한 사회구조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1930년대 후반부터 일본인들은 감소하는 반면에 한국인들은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이들 한국인들은 거문도뿐만 아니라 외지로부터 유입된 사람들로 거문도에서 이주한 사람들은 주로 어업에, 외지인들은 상업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였다(박민정, 2004)는 점이다. 그러나 거문도의 근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문은 어업관련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어업근대화의 근대화 특징으로는 어로기술과 어선의 발달과 함께 한국인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과 1931년 어업협동조합 위탁판매라는 근대적 유통체계의 정착으로 지역의 통합이라는 근대화의 또 다른 기제가 구축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 거문도 근대화 과정에서의 사회구조 변화

사회구조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인간 집단의 짜임새”(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회구조는 사회를 구성하는 주체 즉 사람과 주체들간의 관계인 사회제도를 통해서 분석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대화 과정에서의 주체로서의 인구구조와 사회제도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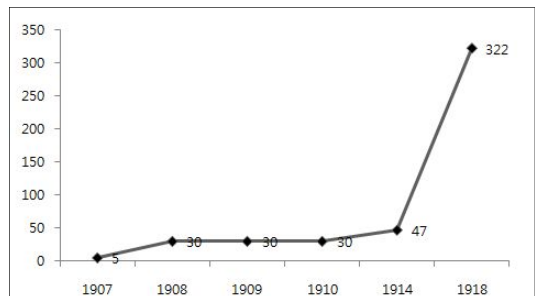
1) 인구 구조

인구구조는 총 인구수, 성별, 직업별 구성을 통하여 고찰하기로 한다¹⁶⁾. 각 시기별 주된 통계자

료는 다음과 같다. 전통사회시기의 자료는 『民籍統計表』(1910)¹⁷⁾와 기존연구¹⁸⁾의 2차 자료이고 근대화 이식기와 근대화 토착화기의 주된 자료는 『朝鮮國勢調査報告書』(1925, 1930, 1935, 1945)¹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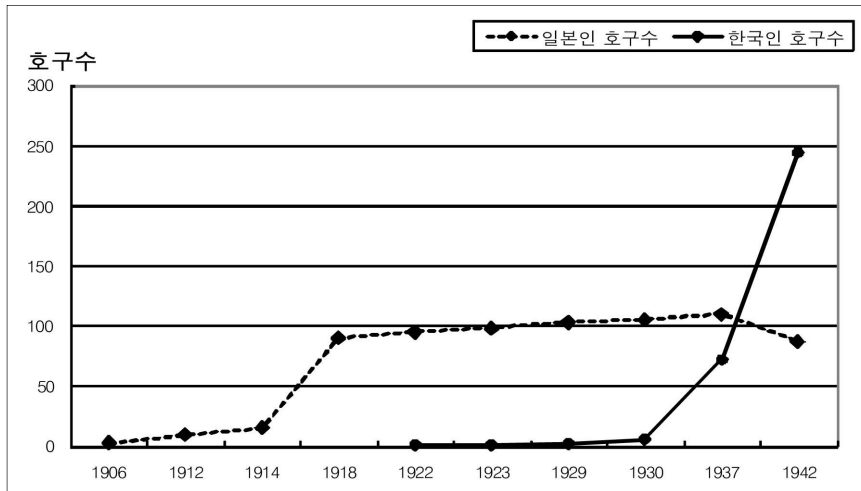
전통사회의 거문도의 인구구조는 『民籍統計表』에 의하여 살펴보면, 1910년의 거문도(당시 흥양현 삼산면)의 총 인구는 931세대의 4,588명이며, 그 중에서 남자가 2,336명, 여자가 2,252명으로 그 성비는 103.7²⁰⁾이었다. 그리고 직업 구성을 보면 전체 931세대 중에서 농업이 610세대로 전체의 65.5%를 차지하며, 그 다음은 어업은 231세대(24.3%), 그리고 상업이 64세대(6.9%)를 차지하고 있다. 당시 거문도는 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도서 지역이면서도 농업이 주업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이는 당시 수산물 시장경제가 발달하지 못한 결과 농업환경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자급자족적 경향이 강한 도서지역이라는 전통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음은 근대화 이식기의 인구구조는 1925년의 『朝鮮國勢調査報告書』의 자료를 기초로 살펴보면, 당시 거문도의 총인구는 1,527세대의 7,573명으로 1910년에 비해 1.6배가 증가되어 전국 평균 1.1배²¹⁾보다 그 증가율이 높았다. 반면에 그 성비는 90.4²²⁾로 급격히 낮아졌다. 이와 같은 거문도의 총인구수 및 성비의 변화는 이 시기의 일본인 이주 및 집단거주지의 형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1906년 당시 무인도이었던 고도에 최초로 이주한 일본인²³⁾을 시작으로 1908년에서 1912년 사이에 6가구가 이주하였고, 1914년에는 총 15가구의 47명, 1918년 90세대 322명, 1923년에는 98호의 일본인 가구가 거문리에 정착하였다



자료 : 광영보(1986)를 기초로 필자 작성.

그림 2. 거문리 이주 일본인수



자료: 광영보(1986)와 『삼산면 除籍簿』를 기초로 필자 작성

그림 3. 거문리의 국적별 세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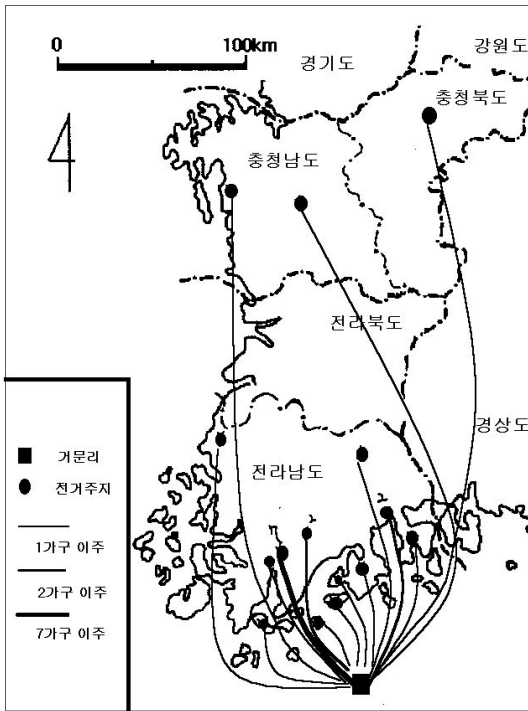
(광영보, 1986). 이와 같은 거문도 초기 이주 일본인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같은 고향의 어민이 주를 이룬 것으로 추정된다(최길성, 1992).

이와 같은 일본인 이주자들의 증가와 함께 거문도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성비는 급격하게 낮아진 것은 여성 유입 혹은 남성 유출의 증가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인구 유입과 유출의 성별 및 직업별 자료가 없는 관계로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단지 그 당시 거문리의 각종 시설 등을 통하여 그 원인을 유추해 보면, 면사무소를 비롯한 공공기관²⁴⁾과 어획물 집산판매를 위한 수산회사(3개업체), 어시장, 제빙소, 조선소 및 철·목공소 등의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여관(2개소), 잡화점(6개소), 유곽 및 주점(9개소), 선구상(2개소) 그리고 전당포(1개소) 등 여성고용의 비중이 큰 상업 및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소위 ‘도시형’ 산업구조로 전환함에 따라 여성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이러한 산업구조의 중심지인 거문리는 기존의 한국인 취락과 격리된 무인도에 새로 형성된 집단거주지로 기존의 거문도 주민과의 충돌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기존의 한국인 거주지와는 별도의 취락이 생겨나면서 거주공간구조도 변화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근대화 토착화기의 인구구조에 있어서는 먼저 총 인구수는 1930년의 9,617명, 1935년

9,699명 그리고 해방된 1945년에는 9,78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그 성비는 각 연도별로 108, 100 그리고 80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1930년 『朝鮮國勢調査報告書』 자료에 의하면 거문도(여수군 삼산면)의 청장년층의 비율은 군내에서 가장 높고, 전라남도 내 타 지역에서 출생한 인구 비율은 10.1%로 군 평균보다 6% 이상 낮은 반면 외국으로부터의 이주자 비율은 7.5%로 여수군 평균의 2배 이상이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문리의 일본인 세대수는 근대화 이시기인 1914년에서 1918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토착화기에는 거의 정체상태를 유지하다가 중일전쟁이 본격화되어 조선 전역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어선 기름에 대한 규제로 어업 활동이 위축된 1930년대 중반이후에는 감소하였다. 반면에 1922년 처음으로 한국인이 거문리로 이주한 이후 1929년에 22명으로 그리고 1930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여 1930년대 후반 이후에는 일본인 세대수를 추월하였고 1942년에는 224호로 거문리 전체 세대의 68%를 차지하였다(삼산면 除籍簿²⁵⁾; 광영보, 1986).

이들 거문리 거주 한국인들의 이전 거주지를 보면, 대부분 전남의 남해 연안지역이나 인근 도서지역임을 알 수 있다(그림 4). 그리고 거문도 내에서 거문리로의 한국인 이주는 1928년에 최초로 나타났고 해방이전까지 덕촌리에서 4세대, 동도리



자료: 『삼산면 除籍簿』를 기초로 필자 작성
 그림 4. 거문리 거주지의 이전거주지역

에서 1세대, 서도리에서 2세대 등 총 7세대만이 이주하였다(김○○와의 면담). 이와 같이 거문도 내에서는 거문리로의 이주가 적었던 것은 거문리는 근대화 이전까지 무인도이었던 고도에 건설된 이본인 집단거주지라는 거부감과 굳이 이주를 하지 않더라도 출퇴근이 가능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거문리 거주세대는 거문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가구원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단독 호주 또는 취직이나 일가 창립²⁶⁾가구 등의 특이한 성격의 세대가 두드러진다. 그리고 직업별 구성²⁷⁾에 있어서는 농업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군내 타 지역과 비교하면 수산업과 상업 및 자영업 비율이 균청소재지인 여수면 다음으로 높았다. 특히 거문리에는 근대화 이식기에 비해 더 많은 상업 및 서비스시설들이 집적²⁸⁾하였고, 특히 성어기에는 외지로부터 유입한 유동인구의 비중이 매우 큰 지역이었다(이진영, 1992).

이상과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근대화 이전에는 주농부어(主農副漁)의 변경도서인 거문도가 근대화 이식기를 거쳐 한국의 중요한 어업 전진기지로 성장하면서 다민족의 근대사회로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사회제도

다음은 사회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요구와 사회적 기능을 충족시키려는 수단으로 만들어낸 역할과 규범체제인 사회제도의 변화를 의례와 사회조직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공동체 의례

공동체 의례는 공동체의 연대강화를 위하여 일 상생활과는 다른 시·공간에서 행해지는 집단 행위이다.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근대화 이전의 거문도에서는 각 마을단위의 당제(동제)와 무궁형식의 헌석(獻石) 그리고 풍어제가 공동체 의례로 거행되어 왔다(최인택, 1992). 당제는 마을단위

표 1. 거문도의 당제

	덕촌	장촌	유촌	죽촌
제의 명칭	당제			
祭日	음력 3월3일	음력 선달 그믐		
대상신	開拓之神 土地之神	靈神 山神	土地之神 木神, 海神	각시 신랑
祭場	산당			
祭主	선임			
祭儀	산제가 끝난 후 해안가에서 매구			

자료: 최인택(1992)을 기초로 필자 제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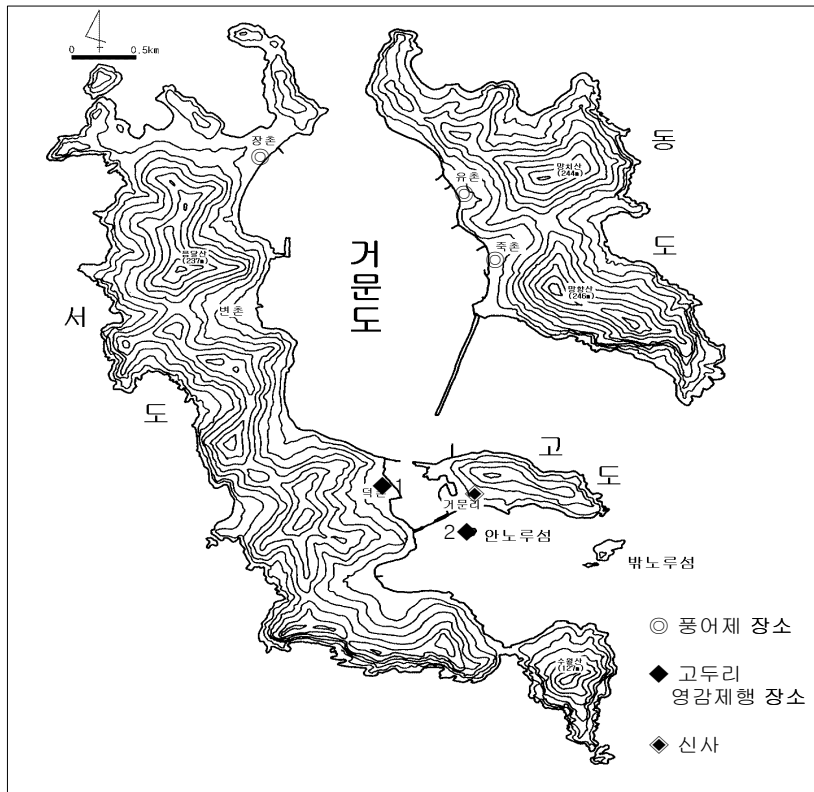
별로 독립적으로 거행되었다. 그러나 의례의 명칭, 장소, 제주의 선입, 제의 절차 등은 거의 동일성²⁹⁾을 공유하고 있다. 헌석은 용왕신에 대한 제의로 정월 대보름에 무당이 주관하며 마을주민들은 농악, 줄다리기 등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한다. 당제와 마찬가지로 각 마을별로 행해지나 그 형식은 유사하였다. 그리고 풍어제는 어업이라는 생산조직 단위의 조업 상의 안정과 풍어를 기원하는 공동체 제의로 성어기를 맞이하기 전에 해안이나 선상(船上)에서 이루어졌다(이○○, 강○○과의 면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화 이전의 거문도는 주농부어의 자급자족적인 도서지역이라는 특성으로 풍어제나 용왕제가 대표적인 공동체 의례인 일반적인 어촌과는 달리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개별 마을 단위의 당제가 대표적인 공동체 의례인 우리나라의 전통사회의 성격이 강한 지역이었다고 하겠다.

근대화 이식기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마을공동체

와는 별개의 일본인 집단거주지인 거문리에 신사(神社)³⁰⁾가 건립되면서 기존의 공동체 의례와는 이질적인 공동체 의례가 등장한 시기이다. 즉 신사는 풍어, 축귀, 해상 안전을 기원하는 일본인들의 공동체 의례의 대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栗田英二, 1992). 이와 같이 신사참배라는 이질적 공동체 의례의 등장은 기존의 거문도민에게는 위협 요소로 인식되면서 기존의 공동체 의례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풍어제인 고두리 영감제³¹⁾는 신사가 건립된 이후 신사와 마주보는 안노루섬에서 규모를 확대해서 행해졌다고도 한다(원○○와의 면담). 결론적으로 근대화 이식기에는 기존의 공동체 의례와 새로운 공동체 의례가 병존·대립하는 양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대화토착화기의 공동체 의례는 그 이전의 의례가 더욱 강화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근대화 이식기의 거문리 신사는 소박한 공동체 의례의 대상이었으나 1941



자료: 면담조사를 토대로 필자 작성

그림 5. 거문도 촌락의 풍어제 개최 장소

년 정식으로 신사로 허가를 받아 규모가 확대되고(栗田英二, 1992, 243), 1942년부터 해군 기념일, 입영 기원제 등 많은 군국주의적 행사가 거행되는 일제의 공적공간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었다(栗田英二, 1992). 이와 같이 근대화 토착화기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방면에서 한국의 전통사회는 근대화라는 문화변용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간 공동체 의례는 그 정체성이 더욱 강화되는 특성을 가진다(최인택, 1992).

(2) 사회조직

다음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회조직의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의 변화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근대화 이전의 거문도는 반농반어의 사회로 농업은 주로 여성이, 어업은 남성이 담당하는 생업의 성별 분화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거문도 전통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조직은 이러한 생업을 중심으로 한 품앗이³²⁾와 어로공동체 조직이 중심이었다. 거문도의 근대화 이전의 전통적인 어로공동체 조직으로는 연근해의 자급적 어로조직과 울릉도 원행조직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일종의 품앗이 형태로 필요에 따라 마을 구성원들이 유동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조직인 반면에 울릉도 원행³³⁾어로조직은 비교적 정규적인 어업조직으로 매년 마을단위로 1~2개씩 조직되었다(이○○와의 면담). 이와 같이 전통사회의 거문도의 사회조직은 생업중심의 공동체조직으로 대표되며, 이러한 공동체조직은 마을단위로 구성범위가 한정되고, 울릉도 원행조직을 제외하고는 조직의 구성원이 유동적인 상대적으로 ‘느슨한 관계(loose network)’의 공동체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원행어로조직은 6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큰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구성원들 간에는 강한 신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마을구성원 중에서도 친인척을 중심으로 하는 혈연과 지연중심의 강력한 결속력을 가진 공동체조직이었다.

이러한 거문도의 전통적 사회조직은 근대화를 계기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먼저 기존의 어로공동체는 선박을 이용한 외출낚시와 주낙 및 고등어 건착선어업이라는 새로운 어로기술의 도입과 확산으로 어업환경과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근대적 생산조직이 등장하게 된다. 먼저 어로활동에 있어서 월급제를 비롯한 임금제 및 시장경제체제의 확산 그리고 한국인과 일본인의 공동어로의 증가로 과거 마을공동체적 생산조직에서 한·일연합적 성격의 생산조직으로 변화하였고, 그 수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비록 일본 식민지 정책의 일환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어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라는 명분하에 1918년에 거문도의 동도, 장촌, 덕촌 그리고 거문리의 4개 마을 전 어업인 503명³⁴⁾이 ‘거문도 어업조합’³⁵⁾을 설립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조직이 결성되었다. 이 어업조합은 자율적이고 자생적인 어업공동체가 아니라는 부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성문화된 규정을 가진 공식적인 조직이라는 점과 어업인들의 권익보호라는 실질적 측면과 한국인과 일본인이 공동으로 참여하였고 지속적인 성장으로 1925년에는 전라남도 최대 조합으로 성장하였다(여박동, 1992)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사회조직으로는 일본식민지정책에 의거하여 조직된 관변조직³⁶⁾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관변단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인들은 ‘청년단’이라는 자치조직을 결성하여 기존의 마을공동체 규약을 강화하고 외부압력으로부터 마을의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박민정, 2004).

근대화 토착화기에는 근대화 이식기를 거치면서 선진어업기술 및 유통체계의 도입과 확산에 의한 자본주의적 생산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근대적 규범이 정착되는 시기이다. 먼저 생산조직의 규모가 확대되고, 그 구성원들도 기존의 공간적 범위를 넘어 다변화 되었다. 반면에 어업조합은 일제 강점기 후반으로 갈수록 식민지 수탈정책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그 역할이 변화된다. 특히 1931년에는 모든 수산물의 어업조합의 위탁판매 외 유통을 금지하였다. 한편 종래 일본인 집단거주지이었던 거문리를 중심으로 한국인 자치조직이 늘어났다. 거문리에 외지에서 이주한 한국인이 늘어나면서, 관혼상제를 비롯한 상호부조를 위한 ‘위친계(爲親契)’와 소방 활동을 위한 경방단³⁷⁾도 조직되었다(황달기, 1992).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자생적, 자율적 사회조직의 성격도 변화되었다³⁸⁾. 이와 같이 근대화 토착화기의 사회조직의 특성으로는 첫째, 다양한 자생적 조직의

등장 및 기존 자생조직의 성격 변화, 둘째 일제 식민지정책의 일익을 담당하는 관변단체의 출현, 그리고 종래 마을단위 공동체적 조직의 영역 및 구성원의 외연적 확대를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외형적으로는 근대적 사회조직의 토착화 경향이 뚜렷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일제 식민지정책의 의한 지역사회에 대한 통제력의 강화로 자율적이고 자생적 조직의 해체와 그에 따른 지역공동체 의식이 해체되는 시기이다.

4. 맺음말

인간의 삶터로서의 공간은 사회적으로 생산되고 변화하는 사회적 공간(social space)이다. 이러한 사회적 공간을 통하여 사회적 관계가 유지되고 사회 구조는 재생산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에서는 근대화 과정에서의 거문도 사회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먼저 근대화 이전 거문도의 사회구조는 하나의 마을을 기본적인 공간단위로 하는 공동체 의례와 조직에 기초한 전통적인 사회로 상대적으로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동시에 마을 간에는 위계성이 없는 독립적이며 병렬적 공간구조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개항기와 일제 식민지화를 계기로 일본인의 이주라는 재입지(relocation)적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마을과는 별개의 거주공간이 형성되었다. 동시에 이러한 별도의 생활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상이한 사회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전통사회의 폐쇄적인 사회적 공간구조는 일본인 집단거주지가 무인도인 고도에 형성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일본인 집단거주지인 거문리를 중심으로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거주지 간의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사회적 구조도 변화하게 되었다. 즉 거문리 뿐만 아니라 타 마을에서도 공동체 의례의 성격이 변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근대적 사회조직의 출현과 성격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정체성과 관계가 깊은 사회조직에 대해서는 오히려 마을공동체의 강화라는 양식으로 대응하였다. 그 결과 거문리라는 근대화의 거점을 중심으로 각 마을 간에는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과거 독립적이며 병렬적 공간구조에서

위계적인 공간구조로 변화하였다. 그 후 근대화 토착화기에는 거주공간의 민족적 분화가 와해되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차원의 사회구조의 재생산의 기폭제가 되었다. 즉 선진어업기술 및 유통체계의 근대화에 의한 자본주의적 생산체제로 전환으로 사회조직을 포함한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근대적 규범이 정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 후반에는 관변조직 뿐만 아니라 각종 자생적 자치조직까지도 식민지 수탈정책을 보조하는 근대화에 역행하는 조직으로 전락하였다.

결론적으로 과거 전형적인 전통사회인 거문도는 근대화 과정을 통하여 인구구조와 사회조직을 중심으로 사회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였고,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로 종래 마을단위의 공동체적 폐쇄적, 병렬적 공간구조는 공동체의 영역 및 구성원의 외연적 확대로 연계성이 강화된 위계적인 공간구조가 재생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제강점기의 근대화는 외세에 의한 '강제된 근대화'라는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 기존의 자율적이고 자생적 조직의 해체와 그에 따른 지역공동체 의식의 해체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주

- 1) 개항기 이전의 조선시대에는 단지 변방의 하나의 섬에 지나지 않았으나 개항기를 맞으면서 서구열강의 동아시아 진출과 더불어 중국대륙과 일본열도 그리고 한반도를 연결하는 중간지점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서구열강의 각축장이 되었고, 한일합방 이전인 1906년부터 일본인 거주지가 형성될 정도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문화의 이식과 전통문화의 해체를 통한 근대화 과정을 경험한 대표적인 지역의 하나이다.
- 2) 대표적인 2차 자료로는 『삼산면지』와 『거문도 풍운사』에 수록된 거문리 거주 일본인의 일기나 기록과 거문도 지역에 대한 기존 연구(여박동, 1992; 이진영, 1992; 최길성, 1992; 최인택, 1992; 황달기, 1992)와 일제 강점기 당시의 산업지 등에 수록된 자료이다.
- 3) 면담 대상자는 일제 강점기동안 거문도 실거주자나 그 후손들로, 강○○(1932년생, 서도 장촌에 거주, 일제 강점기부터 장촌에서 멀치 어업을 한 집안으로 현재도 멀치 어장 운영), 김○○(1915년생, 서도 장촌 거주, 장촌 출생자로 10대에서 20대 초반까지를 외지에서 학교를 다닌 이후 다시 장촌에 정착, 일제 강점기 당시 장촌에서 주점을 운영한 거문도내 일제

- 강점기를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최고령자), 김○○(1921년생, 거문리 거주, 본래 유촌에서 출생하여 2세때 거문리로 이주해 일제 강점기를 거문리에서 보낸 거문리 초기 거주자), 원○○(1931년생, 덕촌 거주, 부친이 일제강점기 일본인 삼정에 근무하며 1930년대 덕촌에서 거문리로 이주), 이○○(1938년생, 서도 장촌 거주, 장촌에서 멀치 어업을 하고 있으며, 거문도 내에서 최초로 홀치기 어업을 한 이○○의 후손), 장○○(1941년생, 거문리 거주, 1917년 최초로 거문리에 입도한 장○○의 손녀), 정○○(1950년 생, 거문리 거주, 임진왜란 이후 거문도에 입도한 집안의 후손이며 삼산면사무소 직원으로 일제강점기 기록을 정리하는 업무 담당) 등이다.
- 4) 서도, 동도, 고도의 3개의 섬이 마주보는 형태로 구성되어, 예로부터 三島라고 불리기도 했다(최길성, 1992).
 - 5) 서도에 장촌, 변촌, 덕촌의 3개, 동도에는 유촌과 죽촌의 2개 그리고 고도에는 거문리가 있다.
 - 6) 거문도가 서구에 알려지게 된 것은 1845년 영국군함 Samarang호가 거문도 해역을 탐사한 후 거문도를 'Port Hamilton'으로 명명하고 소개한 이후라고 할 수 있다(삼산면, 2000).
 - 7)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는 1910~1918년, 1919~1929년 그리고 그 이후 해방까지 3기로 구분한다. 그러나 거문도의 경우에는 본토와는 격리된 도서지역으로 산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본토와는 차별성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적 시기구분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 8) 2보작은 11월에 파종한 보리를 5~6월에 수확하고, 콩과 조를 심어 가을에 수확하는 형태가 중심이다.
 - 9) 1967~68년에 걸친 서울대학교 남해도서 고고조사팀은 신석기유물(마제석기 2점)을 발굴하였다(여박동, 1992).
 - 10) '長作之里', '竹田里', '柚子亭里', '德興里'라는 구체적인 촌락명이 기록되어 있다.
 - 11) 한일합방 이전부터 각종 조약과 협정을 통해 한국어 장으로의 진출을 시도하였다. 1876년 한일수호 조규와 1883년 무역규칙 그리고 1904년 한일어업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국 내 어업근거지를 확보하고 일본 어민의 한국어장 진출을 본격화 하였다(여박동, 2002).
 - 12) 1908년에는 거문도에서 최초로 발동선이 도입되었다(이진영, 1992).
 - 13) 대구리배라고도 하는 7~8척 가량의 대규모 선단으로 70~80명 정도의 선원이 승선한다. 조업 방법은 2척의 배가 고기를 그물로 둘러싸면 2~3척의 배가 그 안의 고기를 잡는다. 고기는 운반선의 얼음에 채워 운반된다. 선원의 임금 지불방식은 고정월급제이고, 대부분의 선박이 일본 수산회사 소속이었다(이진영, 1992; 이○○와의 면담).
 - 14) 당시 거문도에 사무실을 둔 기업으로는 林金, 西太陽 그리고 日本水産 등이며, 이들 기업은 얼음을 구비한 운반선으로 어획물을 수집·수출하였다(이진영, 1992).
 - 15) 장○○에 의하면 거문리에 이주한 최초 한국인은 1922년 고흥군 도양면에서 이주한 장○○이며, 이주 후 직업은 어업이 아닌 주점을 경영하였다고 한다.
 - 16) 본 연구의 인구구조의 분석에 이용할 자료가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각 시기별 자료출처 또한 상이하기 때문에 각 부문간의 비교분석은 불가능한 한계를 가진다.
 - 17) 『民籍統計表』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호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1909년의 民籍法에 입각해 내부경무국에서 실시된 민족조사의 결과물을 발간한 책이다. 조사항목으로 호구수와 남녀 인구수, 산업별 호수, 직업구성의 면별 통계가 있다. 민족 조사는 호적제도의 골격을 마련한 중요 사업이며, 조선시대의 전국적인 사회적 분업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이현창, 1996).
 - 18) 대표적인 연구로는 광영보(1986), 여박동(2002), 최길성(1992)을 들 수 있다.
 - 19) 『朝鮮國勢調査報告書』는 1925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총인구 조사가 실시된 이후 5년 간격으로 해방 이전까지 5차례 조사되었다. 근대적 통계조사로 여러 항목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항목으로는 1925년에 토지, 호구, 산업, 무역, 교통, 공공부문, 금융 등 25개 항목 조사가 실시된 이후, 1935년 22개 항목, 1940년에는 21개 항목으로 조사 내용이 줄어들었다(이희연, 2003; 이혜숙, 2007).
 - 20) 1909년의 삼산면은 홍양현에 속하였으며, 당시 홍양현 전체의 성비는 110으로 거문도의 성비는 현 내 타 면 지역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 21) 1910년 전국 인구는 1,743만 명이었고, 1925년 조선총독부에서 실시한 “간이국세조사”의 결과 총 인구는 1,925만 명(남 972.6만 명, 여 929.4만 명)으로 나타난다(이희연, 2003).
 - 22) 성비가 90미만 또는 110이상일 경우는 비정상적인 요인이 작용하였음을 의미한다(이희연, 2003).
 - 23) 무인도인 고도에 처음 정착한 사람은 湯玉浦 출신의 기무라 츠다로(木村忠太郎)이다. 木村은 고향에서 큰 화재로 전 재산을 잃고 거문리로 이주해온 어민이다. 木村이 정착한 1906년 이전에 거문도에는 小山라는 해저전선 기사인 동시에 우편국 직원이 부인과 함께 들어와 서도의 덕촌에 거주하고 있었다(최길성, 1992).
 - 24) 면사무소 외에 1906년 우편 전신소, 1909년 부산~제주간 정기 여객선 취항에 따른 여객터미널, 1910년 주재소 1923년 관세출장소 등의 공공시설이 설립되었다(삼산면, 2000; 최길성, 1992; 이진영, 1992).
 - 25) 『삼산면 除籍簿』는 삼산면 내에 전원이 제적(除籍)된 호적을 따로 편철(編綴)한 장부로, 일제 강점기 당시 거문리 거주 한국인에 대한 유일하며 공식적인 자료이다.
 - 26) 취적은 호적을 가지지 아니한 무적자에 대하여 새로이 호적을 만드는 것이며, 일가 창립이란 무연고자가 가정을 창립하는 것이다.
 - 27) 『朝鮮國勢調査報告書』의 자료를 기준으로 삼산면은

- 농업 종사인구가 3,868명(40.2%), 수산업이 1,137명(11.8%), 공업이 116명(1.2%), 상업이 357명(3.7%), 교통업이 228명(2.4%), 공무자유업이 54명(0.6%)이다.
- 28) 당시 거문리에는 잡화점이 12개소, 유곽 10개소와 소규모 주점 등 색주가가 30개소 이상, 또한 병원 3개소와 목욕탕 2개소, 대형 여관 3개소가 있었다고 한다(여박동, 1992).
 - 29) 제당은 배후 산지의 산당이며, 그 주변까지를 금지로 정해 신성시한다. 제주는 생기복덕한 자로 선임되며 제의의 전 과정이 제주와 한정된 인원만으로 행해지는 폐쇄적 형식이다. 제의가 끝난 후에는 마을을 거쳐 해안에 이르면 매구를 하고 음식을 바다로 던지며 마을의 안녕(安寧)을 기원한다. 단지 덕촌리의 경우에는 날짜와 대상신이 상이하다. 즉 자연신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마을과 달리 입도조를 대상으로 제의를 치르고 있다(최인택, 1992, 378-381).
 - 30) 신사는 최초 거문리 입도자인 木村 일족에 의해 1907~1910년 사이에 거문리 전체를 조망할 수 있고, 남쪽으로 외해가 보이는 거문리의 남쪽의 높은 언덕에 건립되었다. 남쪽 언덕에는 본래 경주 김씨의 산소가 있었으나, 이장 후 신사를 건립하였다. 신사는 3칸의 본관건물과 좌우의 개 조각상, 목재 등 2기, 목재 문을 갖춘 작은 규모로, 해상 안전의 신인 金比羅, 불교의 축귀 기능의 不動明王, 풍어를 약속하는 惠比須가 모셨다고 한다(栗田英二, 1992).
 - 31) 정○○에 의하면, 한 때 거문도에 흥어가 들어 용왕에게 제사를 올렸더니 폭풍우가 몰아쳐 왔다. 폭풍이 지난 후 바닷가에 바위가 동동 떠올라 이를 안 노루섬에 모신 이후 다시 고등어가 많이 잡혀 정기적으로 고두리 영감제를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 32) 거문도의 품앗이는 일반적으로 마을 내 7~8가구 단위의 호혜적 노동교환조직으로, 일의 성격에 따라 조직 구성원과 그 수가 달라지는 유희적인 성격을 가진 느슨한 형태의 공동체 조직이다.
 - 33) 울릉도 원행은 남풍이 탁월한 5월에 거문도를 출항해서 북풍이 탁월한 10월 돌아오는 6개월간의 일종의 원해어업으로, 어획물은 귀로하는 도중에 판매하는 형태의 어업이었다(삼산면, 2000).
 - 34) 당시 한국인 어업자는 서도리 121명, 덕촌리 181명, 동도리 182명이며, 일본인 어업자는 거문리의 19명이다. 설립 당시 어업자 전원 참여를 강제하는 조선 어업 조합 설립에 근거해 양국 어업자 전원이 참여하였다(여박동, 1992).
 - 35) 거문도 어업 조합은 거문도의 각 마을을 통합한 조직으로 그 역할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거문도 최초의 공식적 사회 조직이다. 그리고 그 기능에 있어서도 기존의 어업공동체조직과는 달리 어업 환경의 개선, 판매나 유통 기능을 수행하는 이익단체의 성격을 가진 근대적 사회조직이었다.
 - 36) 구체적인 예로는 1909년에 설립된 일본인회와 1918년에 설립된 제국재향군인회 여수분회를 들 수 있다.
 - 37) 고향에서 대화재로 모든 것을 잃고 정착한 초기 이주 일본인의 경험과 관련된 조직으로 추정된다(황달기, 1992, 352).

- 38) 관변단체에 대응책으로 조직되었던 청년단도 '거문도청년단'으로 개칭되어, 전라남도 청년단의 지부에 소속되어 일제의 식민지정책의 하수조직으로 전락하였다. 또한 여성들의 봉사활동이라는 명분으로 조직된 대일본부녀회의 역할도 마찬가지로였다(황달기, 1992).

문헌

- 강혜영, 2002, 한국 근대 가구에 관한 연구: 1880~1960년 의류수납가구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동환, 1993, 18·19세기 서울 경강지역의 상업 발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곽영보, 1986, 거문도 풍운사, 삼화 문화사, 여수.
- 구범모, 1973, 근대화과정에서의 정치 엘리트에 관한 연구: 엘리트의 충원과 사회집단의 변천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태익, 1989, 한국 근대 면업사 연구, 일조각, 서울.
- 김용섭, 1992, 한국 근현대 농업사 연구, 일조각, 서울.
- 김일기, 1985, 곰소만 일대 어촌 취락의 성쇠에 관한 연구 - 사포, 후포, 감포를 중심으로, 전라 문화연구, 1, 143-166.
- 김종원, 1976, 부산의 도시성장에 대한 역사지리적 고찰: 개항-해방까지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호중, 1986, 조선 후기 어업의 유통 실태, 대구 사학, 31, 109-138.
- 内部警務局, 民籍統計表, 1910.
- 박민정, 2004, 어업 근대화에 따른 지역성 변화,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삼산면 除籍簿
- 삼산면(삼산면지발전추진위원회), 2000, 삼산면지, 동아기획, 여수.
- 손정목, 1996, 일제강점기도시화 과정 연구, 일지사, 서울.
- 송규진, 2001, 일제 식민통치 초기 대전의 발전과 도시화 과정에 관한 연구, 지역발전연구, 8, 175-193.
- 안병직·中村哲, 1993, 근대 조선 공업화의 연구: 1930~1945, 일조각, 서울.
- 여박동, 1992, 거문도의 자연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배경, 최성길, 일제시대 한 어촌의 문화 변

- 용 상, 253-292, 아세아문화, 서울.
- 여박동, 2002, 일제의 조선 어업 지배와 어촌 형성, 보고서, 서울.
- 유명렬, 1979, 신안군의 경제지역 구조에 관한 고찰, 주로 흑산도를 중심으로, 광주교육대학교 논문집, 19, 161-173.
- 유왕렬, 1967, 흑산도의 취락 연구-주로 어촌 취락의 구성과 기능을 중심으로, 목포교육대학교 논문집, 1, 57-68.
- 윤정숙, 1985, 개항장과 근대도시 형성에 관한 역사지리학적 연구: 군산항을 중심으로, 지리학, 20(2), 74-99.
- 栗田英二, 1992, 신명신사와 신사, 최성길, 일제시대 한 어촌의 문화 변용 상, 235-251, 아세아문화, 서울.
- 이계열, 1997, 한국 수산업 자본제화 과정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학, 2001, 조선 후기 어물의 유통, 한국문화, 27, 205-245.
- 이윤근, 1974, 정치근대화 과정의 연구: 한국적 상황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영, 1992, 거문도의 근대 어업 발달, 최성길, 일제시대 한 어촌의 문화 변용 상, 253-292, 아세아문화, 서울.
- 이헌창, 1996, 민적통계표의 검토, 고문서연구, 9(10), 483-514.
- 이혜숙, 2007, 일제시대 센서스 지도화를 통한 지역의 이해, 한국 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희연, 2003, 인구학, 법문사, 서울.
- 장보용, 1988, 전남 도서지방 어촌의 구조와 기능: 어촌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리학, 38(2), 1-13.
- 전경수, 1994, 문화의 이해, 일지사, 서울.
- 정영삼, 2003, 일제의 불교 침투와 조선 불교계의 대응,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기준, 1973, 한국경제사, 일신사, 서울.
- 조명래, 2013, 공간으로 사회읽기, 한울아카데미, 서울.
- 朝鮮總督府, 朝鮮國勢調査報告書, 1925, 1930, 1935, 1940, 1945.
- 최길성, 1992, 어촌의 문화 변용: 일본이 개척한 섬의 문화 인류학적 연구, 최길성(저), 일제시대 한 어촌의 문화 변용 상, 51-84, 아세아문화, 서울.
- 최영준, 1974, 개항을 전후한 인천의 지리적 연구, 지리학과 지리교육, 2, 1-38.
- 최인택, 1992, 제례, 의례를 통해 본 거문도의 지역 문화, 최길성(저), 일제시대 한 어촌의 문화 변용 상, 371-394, 아세아문화, 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서울.
- 한상복·차재호·이문웅·양춘·안병만·신유근, 1980, 한국문화의 연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서울.
- 황달기, 1992, 거문도의 사회 조직, 최길성(저), 일제시대 한어촌의 문화 변용 상, 349-370, 아세아문화, 서울.
- 巨文島沿革誌
巨文鎮誌, 1895.
廬山志, 1899.
戶口總數, 1789.
- 尹德弘, 1991, 韓國の近代化: その過程とそれをめぐる理論の變遷, 東京大學: 社會學研究科 社會學 博士學位 論文.
- Soja E. W., 1980, The socio-spatial dialectic,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0(2), 207-255.
- 교신 : 박순호, 705-715,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19, 대구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이메일: shpark@dnue.ac.kr, 전화: 053-620-1323)
- Correspondence : Soon-Ho Park,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19 Jungang-daero, Nam-gu, Daegu 705-715, Korea(e-mail: shpark@dnue.ac.kr, phone: +82-53-620-1323)
- (접수: 2016.01.08, 수정: 2016.02.20, 채택: 2016.02.25)